

원 진희(연세대) 사무엘상 15장의 전승사적 위치

본 논문에서는 삼상 15장을 문헌비평적으로 분석하여 형성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삼상 15장의 가장 오래된 문서층은 역대기 신학에 가까우며 사울의 불순종과 그의 버림받음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이 이야기는 신 1 - 3장; 수 2장 9, 10; 민 24장 7-9a절과 연결되며, 이스라엘의 왕이 아말렉 왕 아각보다 더 강하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무엘상 15장의 전승사적 위치

원 진희 | 연세대

1. 서론

사무엘서에서 사울을 다루는 이야기에서 삼상 15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이 장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폐위에 대하여 확고한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 따르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야훼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야훼는 그를 거절하였다. 이 장에 대한 현재의 연구들의 관심사는 삼상 15장이 어느 정도로 신명기 사가적인(dtr) 편집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삼상 7 - 14장에서 고대 자료들(삼상 9: 1-10: 16; 10: 27b LXX + 11: 1-11, 15; 13: 2-14: 51)과 신명기 사가적인 기원을 가진 자료들(삼상 7: 2-8: 22; 10: 17-27a; 12: 1이하)을 보았으며, 삼상 15장이 그 정신에 있어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우며, 삼상 15장의 연대를 신명기 사가 이전 후기 시대(late pre-Dtr)로 설정하였다.¹⁾ 스미스(H. P. Smith)²⁾

1)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Georg Reimer, 1899³), 239-246쪽.

2) H.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와 부데(K. Budde)³⁾는 삼상 15장이 후자의 자료와 통합된 부분이며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삼상 15장을 E 자료로 간주하였다. 노트(M. Noth)는 벨하우젠의 가설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장의 신명기 사가적인 기원을 주장하였다.⁴⁾ 이 주장은 여러 학자들이 받아들였다.⁵⁾ 바이저(A. Weiser)에 따르면 삼상 15장은 12장과 유사하나, 12장의 계속이 아닌 독립된 블록을 형성하며 신명기 사가적인 자료들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다.⁶⁾ 그론백(J. H. Grønbaek)은 삼상 15장을 '다윗의 왕위 등극 역사'의 시작으로 간주하였다.⁷⁾ 버취(B. C. Birch)는 삼상 15장을 삼상 7 - 15장을 편집한 예언자적인 편집자의 공헌으로 간주하였으며, 사마리아 멸망 후에 북 왕국 예언자 집단에서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⁸⁾ 돈너(H. Donner)는 삼상 15장과 구약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9), 129쪽 이하.

- 3) K. Budde, *Die Bücher Samuel* (Kurzer Hand-Commentar zum Alten Testament VIII), (Freiburg-Leipzig-Tübingen: J. C. B. Mohr, 1902), 106쪽 이하.
- 4) 마틴 노트, 「전승사적 연구들」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43, 1967³), 62쪽.
- 5) C. H. Brekelmans, *De Herem in het Oude Testament*. (Leuven: Leuven Uni. Press, 1959), 106쪽 이하; K.-D. Schunck, *Benjamin. Untersuchungen zur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israelitischen Stammes* (BZAW 86), (Berlin: De Gruyter, 1963), 84쪽; R. A. Carlson, *David, the Chosen King. A Traditio-Historical Approach to the Second Book of Samuel*,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46쪽; H. Schulte, *Die Entstehung der Geschichtsschreibung im alten Israel* (BZAW 128), (Berlin: De Gruyter, 1972), 105쪽; T. Veijola, *Die ewige Dynastie. David und die Entstehung seiner Dynastie nach der deuteronomistischen Darstellung*, (Helsinki: Finnische Exegetische Gesellschaft, 1975), 102쪽; 동저자,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Helsinki: Finnische Exegetische Gesellschaft, 1977), 88쪽 그리고 각주 33; R. Bickert, "Die Geschichte und das Handeln Jahwes. Zur Eigenart einer deuteronomistischen Offenbarungsauffassung in den Samuelbüchern," A. H. J. Gunneweg/O. Kaiser (Hg.), *Textgemäß. Aufsätze und Beiträge zur Hermeneutik des Alten Testaments*. Festschrift für E. Würthwein zum 70.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19-21쪽.
- 6) A. Weiser, "1 Sam 15," *ZAW* 54 (1936), 1-28쪽. 이 연구는 변경되지 않고 동저자, *Glaube und Geschichte im AT und andere ausgewählte Schrif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201-228쪽에서 재인쇄되었다.
- 7) J. H. Grønbaek, *Die Geschichte vom Aufstieg Davids (1. Sam 15-2 Sam 5). Tradition und Komposition*, (Kopenhagen: The Uni. Press, 1971).
- 8) B. C. Birch, *The Rise of the Israelite Monarchy: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 Samuel 7-15* (SBL DS 27), (Missoula: Montana, 1976). 이미 W. Nowack, *Richter, Ruth und Bücher Samuelis*, (Hand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I/4), (Göttingen: Vanden-

성서의 여러 본문 곧 창 25장 18절, 민 22 - 24장, 신명기적인(Dt) 본문과 신명기 사가적인(Dtr) 본문들, 삿 1장 16절, 삼상 8 - 11장, 13장, 14장, 22장, 23장, 30장, 그리고 왕상 11장과 관련됨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 20장 10-18절, 그리고 삼상 15장 17절과의 접촉은 확실하게 삼상 15장을 신명기 사가 이후 시대로 연대 설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삼상 15장 7b절과 창 25장 18a절 (P문서 이후의 추가)과의 접촉을 해석하며, 삼상 15장의 연대를 포로기 이후의 후기 시대로 간주한다.⁹⁾ 포레스티(F. Foresti)는 삼상 15장의 기본 층이 신명기 사가 1차 편집자(DtrH)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후대의 저자에 의하여(예언적인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 DtrP) 사울의 전승인 삼상 9-14장과 다윗의 등극 역사인 삼상 16장 14절 이하 사이에서 DtrH에 의하여 만들어진 연결선에 첨부되어 사울의 운명의 전환을 설명하였고, DtrN(율법을 강조한 신명기 사가적 역사서)에 의하여 확장들로서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얻어내었다.¹⁰⁾ 포레스티는 선행 연구들보다 삼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을 비교적 세심하게 밝혀 내었으며, 보충된 부분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서 먼저 포레스티가 문학비평을 통하여 얻은 삼상 15장의 기본 층의 부피를 검토하여 재조정된 다음에, 재조정된 기본 층의 본문을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여 기본 층의 전승사적인 위치를 새롭게 규정하려고 한다.

2. 문학비평

포레스티에 따르면 삼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은 다음과 같다:¹¹⁾

hoeck & Ruprecht, 1902), 72쪽은 사무엘상 15장이 예언자의 정신과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9) H. Donner, "Die Verwerfung des Königs Saul," *Sitzungsberichte der wissenschaftlichen Gesellschaft an der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vol. 19 (1983), Nr. 5, 229-260쪽.

10) 이미 T. Veijola, *윗글* (1975), 102쪽, 각주 152번; F. Foresti, *The Rejection of Saul in the Perspective of the Deuteronomistic School. A Study of 1 Sam 15 and Related Texts*, (Roma: Edizioni del Teresianum, 1984). DtrH, DtrP 그리고 DtrN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 Smend, *Die Entstehung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W. Kohlhammer, 1978), 111쪽 이하를 보라.

11) F. Foresti, *윗글*, 42쪽 이하.

1aα(단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2, 3aα, 4aα, 5a, 7a, 8b(단지 “칼날로”), 9aα¹(“그리고 그 백성”까지), 9aα²(단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9aβ, 9b(단지 “모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였다”), 10-11, 12ba(단지 “보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13-14, 15aα(“끌어온 것이다”까지)β, 16, 17(단지 “당신이 당신 보기에 머리”만), 18a, 18ba(“죄인들”을 제외), 19, 23b, 30-31, 34a, 35aα.

그런데 포레스티의 문학비평 결과에는 몇 개의 문제점들이 있다. 7-8절은 전체 백성을 진멸하라는 계명을 수행하는 것을 보도한다: “사울이 ...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이에 반하여 9절은 사울이 가축을 남겨놓았다고 주장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러한 불일치는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추가로 무언중에 어떤 것, 즉 불순종에 대하여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은(8a절)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이 그를 야훼 앞에서 각을 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32-33절). 장소를 갈멜로 정한 32절에 비하여 33절은 장소를 길길로 설정하므로 보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보충인 33절은 사실상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32 사무엘이 말하였다: ‘너희는 아말렉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 아각이 즐거이 와서 말하였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33 사무엘이 말하였다: ‘... .. 그리고 사무엘이 길길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찢어 찢개었다.’”

본문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포레스티와 같이 1aβγb절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1b절은 1aα절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¹²⁾ 2a절은,

12) C. Kuhl, “Die ‘Wiederaufnahme’ – ein literarkritisches Prinzip?” ZAW 64 (1952), 1-11쪽. 다

1aβ절과 같이, 신탁을 전달하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1aα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aβγ 야훼가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b 이제 야훼의 말씀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2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벌하노니 3aα¹ 지금 가서 너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을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포레스티는 3절 상반절에서 **בַּחֲרָמֹתַי**(버하하람탐/그리고 너희가 진멸시켜라)으로 읽는다. 그러나 우리는 3절의 처음에 있는 2인칭 단수에 일치하게 자음을 변형시키지 않고(**בַּחֲרָמֹתַי** 버하하람타/너는 진멸시켜라)로 읽으며 이와 함께 모음을 변형(**בַּחֲרָמֹתַי** 버하하람탐/그리고 네가 그들을 진멸시켜라)시키면 흐름이 매끄럽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3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충 구절로서 인정하게 된다. 7b절이 사울의 아말렉 전쟁 보도에 추가되었다는 것과 8절을 분리시키려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다. 3절의 기본 층의 명령은 수행의 보도인 8절에 정확히 일치한다. 12b(“**וְהָיָה** 버한네”부터)절은 분사 문장이므로, 12aba(“**הַכְרַמְלָה** 학카르멜라”까지)절과 구분되며, 그 결과로 장소를 갈멜로부터 길갈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31-32절에 대한 보충 구절인 33절에서는 장소를 길갈이라 밝히고 있다. 출애굽 주제와 관련되어 켈 사람에게 관하여 언급한 6a, b절은 고립된 보충의 표식을 가진다. 고유한 아말렉 전쟁이야기는 1-8*, 12*, 31-32절에서 생겨난 것이다¹³⁾. 따라서 삼상 15장의 기본 층과 관련된 포레스티의 분석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기본 층은 1aα, 2, 3aα(“**בַּחֲרָמֹתַי** 버하하람탐”까지만), 4aα, 5a, 7-8, 12aba(“**הַכְרַמְלָה** 학카르멜라”까지), 31-32절이다. 삼

시 받아들임의 문학적 기능은, 이차적인 삽입에서, 삽입이 시작된 곳에서 출발점을 다시 만드는 것이며, 그래서 본래의 담화는, 중지 후에, 다시 시작되었다.

13) Ch. Levin, “Rez. of Foresti, Fabrizio, *The Rejection of Saul in the Perspective of the Deuteronomistic School. A Study of 1Sam 15 and Related Texts*,” (Roma: Edizioni del Teresianum, 1984), *Theologische Revue* 83 (1987), 105-107쪽.

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은 아래와 같다:

“1aa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2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벌하노니 3aa¹ 지금 가서 너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을 진멸하라’ 4* 이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5* 사울이 아말렉의 성에 이르러 7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8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로 갔다’ 하니라 31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한지라 32 사무엘이 말하였다: ‘너희는 아말렉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 아각이 즐거이 와서 말하였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3. 전승사적 위치

이 기본 문서층은 본래 사울의 버림받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31-32절도 그러하다. 그래서 삼상 15장의 기본층과 관련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본래부터 사울의 버림받음을 서술하기 위한 테두리로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상 14장 48절에서 아말렉 전쟁은 아주 긍정적인 사건으로 묘사되었다. 삼상 14장 48a절 “그가 용감하게 행하여 아말렉을 쳤다”는 서술은 DtrH에 의한 사울 역사의 요약인 삼상 14장 47절 이하에서 앞뒤의 문맥과 어긋나는 삽입이다. 이 구절이 삽입되어야만 했다 할지라도, 이 구절은 그 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삼상 15장의 모습을 역으로 추론하였다.¹⁴⁾

삼상 15장 2절에서 사무엘의 전달은 확대된 예언자 선포 표현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확대된 예언자 선포 표현 공식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삼하 7: 8)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수 7: 13; 24: 2; 사 6: 8; 삼상 10: 18; 12: 7; 왕상 14: 7; 17: 31; 왕하 9: 6; 18: 20; 21: 12; 22: 15, 18)는 DtrG에서 모두 예외 없이 DtrH보다 더 후대의 시대에 해당한다.¹⁵⁾ 이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의

14) C. Levin, *윗글*(1987).

표현공식이 등장하는 삼하 7장 8절은 P문서보다도 훨씬 후대의 구절에 속한다.¹⁶⁾

사무엘에 의하여 선포된 아훼의 명령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방해하였던 아말렉을 회상하게 하며,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출애굽 표현 공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구약 성서에서 삼상 15장 2,6절 이외에 단지 샷 11장 13, 16절에서 등장한다. 삼상 15장 6절은 이 장에서 보충 구절이며, 샷 11장 13절과 16절도 DtrH 이후에 삽입되었다. 샷 11장에서 사용된 출애굽 표현 공식은 시내산 사건 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요르단 동부 영토 점령과 관련되었다. 여기서 회상된 영토 점령의 사건들은 사경에서 JE 영토 점령 전승들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승들을 사경의 최종 편집 이후에 보충하여 사경 안으로 들어오게 한 개작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¹⁷⁾

포레스티는 출애굽 시의 아말렉의 행위 회상과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신 25장 17-19절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후자는 한 사람의 저자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의 기본 문서 층은 17a, 18aa, 19절로 구성된다:¹⁸⁾

“17a 너는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17b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길에서
18a* 곧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떨어진 모든 약한 자들을
쳤던 것을 (기억하라)
18aβb 그리고 너는 피곤하였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아훼가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
는 땅에서 네 하나님 아훼가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네게 안

15) W. Dietrich, *Prophetie und 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71쪽.
16) 원 진희, 「출애굽 신앙고백」 (서울: 한우리, 2005), 129쪽. 비교. C. Levin, *Die Verheißung des neuen Bund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251쪽 이하. 삼하 7: 1-17의 문학적 발전과정은 처음에 이러하다: 1-3절/4-6절/8, 12, 14a절.
17) 원 진희, “샷 11장 13-27절의 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6집(2007. 12), 66쪽.
18) 출애굽 표현 공식인 신 25: 17b는 복수이므로 보충 구절이다. 18aβb절은 명사 문장이므로 보충 구절이다. 비교. 원 진희, *윗글* (2007), 66쪽.

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삼상 15장 2절과 신 25장 17a, 18*절에서 회상된 아말렉의 행위들의 묘사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는 단순히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하였다고 서술하는 반면에, 후자에는 전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회상한다. 삼상 15장 3절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였으나, 사울은 오직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주었으며, 이 행위가 불순종으로 책망 받지도 않았다. 반면에 신 25장 19절에서는 명령이 더 날카롭게 내려져,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삼상 15장의 기본 층이 신 25장 17-19절*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신 25장 19절의 명령은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찢었다고는 보충 구절 삼상 15장 33절의 보도에서 수행되었기에, 신 25장 17-19*절은 삼상 15장의 보충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 25장 19절은 삼상 14장 47절 이하에서(DtrH, 48a절은 더 후대에) 그 배경 문맥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신 25장 17-19*절과 아멜렉 전승인 출 17장 8-16절의 문학사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신 25장 17-19*절이 더 후대의 것이다. 이는 출 17장 8-16절에서 보충 구절인 14절(→15-16절)이 신 25장 19절을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삼상 15장 2-3절과 출 17장 8-13절의 관계는 어떠한가? 후자에서 “장소 언급 **מִן הַר גִּבְעָה**(버르피딤/르피딤에서)의 반복은 8절을 1절에 대한 추가로서 - 그리고 이로써 전체 장면을 1절에 대한 추가로서 입증하는 것이다.”¹⁹⁾ “그 단락은 여기서 너무 빠르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백성의 전투 상황에 속한다.”²⁰⁾ 그 이야기는, 출애굽과 영토 점령

19) 크리스토프 레빈, 「편집자 아웨기자」(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569쪽. 원제는 C. Levin, *Der Jahw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20) H. Holzinger,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55쪽.

이 똑바른 단계로 나란히 이어지며, 시나이 단락이 없었을 전승 형성의 비교적 고대의 단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것의 양식에 있어서 원전 자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아훼 기자의 편집의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출 17장 8절은 보도한다: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피딤에서 싸웠다.” 이 보도에서 행위의 주도권은 아말렉에게 있다. 삼상 15장 2절에서도 주도권은 아말렉에게 있다. 후자의 보도는 출 17장 8절의 보도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해하였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하였다. 더욱이 이 보도는, 그것이 시내산 체류 전에 놓여 있다 해도, 본래 영토 점령과 관련되었다. 사 11장 13,16절에 있는 출애굽 표현 공식이 영토 점령 전승을 회상하는 것처럼, 삼상 15장 2절에 있는 동일한 출애굽 표현 공식이 본래 영토 점령 전승인 출 17장 8-13절을 회상하고 있다. 아말렉과의 전투 묘사가 출애굽기에서 현재의 문맥에 놓여진 것은 출 17장 1절에 나오는 “그들이 르피딤에 진을 쳤다”는 보도에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 25장 18aα절, “곧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 뒤에 떨어진 모든 약한 자들을 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보도는 출 17장 8-13절에 대한 하가드적인 해석이다.²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출 17장 8-13절; 신 25장 17-19절; 삼상 15장 2절의 전승사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출 17장 8-13절
- 2) 출 17장 8-13절을 출애굽기의 문맥에 넣은 편집자; 삼상 15장 2절
- 3) 신 25장 17a, 18aa, 19절
- 4) 출 17장 14절

우리는 여기서 보충 구절인 신 25장 17b절에 있는 출애굽 표현 공식을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이 표현 공식은 이미 존재한 18절의 “길에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다 수 2장 10절에서 등장하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표현 공식을 덧붙

21) A. Bertholet, *Deuteronomium* (KHC zum AT 5), (Freiburg i.B: J. C. B. Mohr, 1899), 79쪽; F. Foresti, *윗글*, 99쪽.

여서 이루어졌다.

- “9ba* 그리고 너희를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임함을 (아노라)
9bβ절 그리고 이 땅의 거주민이 모두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음을
(아노라)
10a* 이는 우리가 들었음이라
10a*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가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그리고)
10b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11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
에서도 하나님이라.

사경의 최종 편집을 이미 전제하고 수 6장의 DtrN과 제사장적인 층을 알고 있었던 DtrH 이후의 두 번째 보충 부분은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殄滅시킨 사건을 회상하며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티브를 강조하였다.²²⁾ 여기에 *헤렘* (=진멸) 사상이 등장한다. *헤렘*을 수행하라는 모세의 명령은 신 7장 2절과 20장 (14), 15-17절에 등장하며, *헤렘*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들은 신 2장 34절; 3장 6절; 수 2장 10b절; 8장 26절; 10장 1, 28, 35, 37, 39, 40절; 11장 11, 12, 20, 21절; 왕상 9장 21절에 나온다. 모세의 명령과 관련된 두 구절은 모두 DtrH 이후의 신명기 계명에 해당한다.²³⁾ *헤렘*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도 모두 DtrH 이후의 구절들이다. 언어 용법에 있어서 신 7장 2절과 삼상 15장 2,3절은 두 동사들을 병렬로 사용하고 있다: 동사 **נָסַח**(나가/치다)와 *헤렘*이다. *헤렘*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호수아였으나, 신 2장 34절; 3장 6절; 수 2장 10b절에서 *헤렘*을 수행한 자는 모세였으며, 더욱이 모세가 아모리 왕들 시혼과 옥을 진멸한 것은 모세가 *헤렘*에 관한 계명을 주기 이전의 행위였다. 이 세 구절들은 모두 사경의 최종 편집보다 더 후대에 기록되어졌으며,²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부터 가

22) 원 진희, “여호수아 2장의 문학 비평적 분석과 신학,” 『신학논단』 45집(2008) (출간 예정).

23) 원 진희, “신명기 5-8장 주석,” 강 성열 등, 『역사비평주석 신명기』 (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2), 184쪽 이하. F. Foresti, 윗글 (1984), 124쪽 이하.

나안에 오기까지 여정을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출 17장 8-13절에 나오는 고대 전승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였다 - 헤렘 사상이 그 당시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위의 세 구절들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였던 아말렉을 시혼과 옥처럼 진멸해야만 하였다. 그는 적합한 문맥을 찾던 가운데, 사울 왕의 전성기를 묘사하는 삼상 14장 47절 이하에서 찾았으며, 48a절에서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였다. 수 2장 9, 10절에서 헤렘 사상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티브와 결합되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출애굽 표현 공식을 사용한 다음의 세 번째 층은 홍해 바다를 말리신 야훼의 능력을 찬송하며 이방인이 야훼와 이스라엘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간담이 서늘하였으며, 야훼를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서술하였다.²⁵⁾ 수 2장 10절의 출애굽 표현 공식은 전승사적으로 신 25장 17a, 18aa, 19절보다 더 후대의 것이며, 신 25장 17b절보다는 더 오래되었다.

더 후대에 수 5장 4b, 5절에서는 신 25장 17b절의 출애굽 표현 공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를 받아들이면서 “광야에서”를 첨가한 표현 공식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있는 광야에서”가 발견된다. 신 25장 18a절의 표현 “길에서”는 수 5장 7절에서 이미 발견되었다. 수 5장 2-9절의 문학비평적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⁶⁾

- (1) 수 5장 2*-3, 8b-9ba절
- (2) 수 5장 4a, 6절 (“애굽으로부터 나온 군사들이”는 제외), 7-8a절
- (3) 수 5장 2*, 5절
- (4) 수 5장 4b절
- (5) 수 5장 6절 (“애굽으로부터 나온 군사들”만).

24) 원 진희, “신 1-3장은 DtrH의 것인가?” 『구약논단』 20집(2006. 4), 84-100쪽.

25) 출애굽 표현공식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와 함께 애굽에 내린 재앙(출 13: 8), 홍해의 기적(수 2: 10; 시 114: 1, 2), 선택(시 114: 1, 2), 율법의 수여(신 4: 45; 학 2: 5aα; 대하 5: 10) 혹은 미리암에 대한 야훼의 심판(신 24: 9),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과의 갈등(신 4: 46bβ; 아모리 사람들, 신 23: 5; 암몬 사람들, 신 25: 17b; 아말렉 사람들이) 현재화되었다.

26) 원 진희, 『출애굽 신앙고백』 (서울: 한우리, 2005), 175쪽 이하.

이상에서 보는 듯이 출애굽 표현 공식의 전승사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삼상 15장 2절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길에서:
- (2) 수 5장 7절의 “길에서” =신 25장 17a, 18aa, 19절
- (3) 수 2장 10절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 (4) 신 25장 17b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 (5) 수 5장 5절의 확장된 표현 표현공식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있는 광야에서”
- (6) 수 5장 4b절의 동일한 표현 공식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있는 광야에서”

여기서 수 5장 5절은 “나온 모든 백성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수 5장 4b절은 이것보다 더 확장된 표현 공식 “애굽에서 나온 백성, 남자들”을 동반한다. 그보다 늦게 수 5장 6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이 삽입되었다.

수 5장 2-9절의 기본 층에서 여호수아는 부식들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 다음 단계인 수 5장 4a, 6*, 7-8a절에서는(= 신 25: 17-19*)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그들 다음에 일어난 후손들은 광야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 14장 33-34절을 지적한다. 이 구절은 민 13-14장에서 최종 편집 이후에 해당된다.²⁷⁾ 다음 보충 구절인 수 5장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 “이른 그 나온 모든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백성을 위한 표시는 아래와 같다: **וְכָל־הָעָם־הַיֹּצֵאִים־מִן־מִצְרָיִם**(콜 하암 하이요츠임/그 나온 모든 백성). 이 복수의 표현은 민 26장 4절에 등장한다.

27) 크리스토프 레빈, 「편집자 야웨기자」(원 진희 옮김)(서울: 한우리, 2006), 600쪽 이하. 원제는 C. Levin, *Der Jahw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그 다음 문서 층인 수 5장 4b절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 남자들(모든 군사들)”을 동반한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단수로 표시되었고, 그들은 남자이며, 군사들이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남자들(모든 군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길에서 죽었다.” “אֲנָשֵׁי מִצְרַיִם וְכָל בְּנֵי יִשְׂרָאֵל” (안세 함밀하마/군사들)이라는 표현은 사경에서 민 31장 28, 49절에서 발견되며, 신 2장에서 보충 구절에 속하는 2장 14b, 16절에 등장한다.

전승사적으로 삼하 15장 2절에 나오는 출애굽 표현 공식 이후로 등장한 출애굽 표현 공식들(“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있는 광야에서”)은 사경에 있는 영토 점령 전승들을 회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회상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계속되는 보충 과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출애굽 표현 공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삼상 15장 2절에 등장하였던 출애굽 표현 공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가 삼상 15장에서 보충 구절인 6절에 다시 등장한다. 사울 왕은 진멸되어야 할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피할 것을 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이는 사울이 그들을 아말렉과 함께 진멸할 염려가 있어서였다. 그 요구의 근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올라올 때에 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 보도는 dtr-이후의 구절인 삿 1장 16절과 출 18장 13-27절과 연결되어 있다. 삿 1장 16절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 켄 사람이며(비교. 삿 4: 11a β, dtr-이후), 이 사람의 후손이 아말렉과 함께 거주했다고 한다: “모세의 장인 켄 사람의 자손이 유대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광야에 이르러 아말렉과²⁸⁾ 함께 거하니라.” 출 18장 13-27절은 재판권의 제정을 모세의 장인에게 돌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 단락에서는, 모세의 장인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 칭한 출 18장 1-12절과는 달리,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칭호와 이드로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 18장 13-26절은 후에 규정

28) 동사는 복수로 읽고, אֲנָשֵׁי(하암/그 백성)은 אֲנָשֵׁי מִצְרַיִם(하아말레키/아말렉 사람들)로 읽어야 한다.

된 재판권의 제정과 관련된다. 이 단락은 지정된 장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법률 재판의 판결의 근거를 제시한다. 시작 부분에서는 중앙 성소의 재판권이 업무의 만원으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일상적인”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장을 받음은 제물을 드림의 실제 문제와 종교적인 인과론과 관련된 많은 개별적이고 의심나는 질문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장차 그것들은 현장에서 판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중앙 법정은 규범을 제시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19b-20절). “이로써 제 2 성전 공동체의 시기에 생긴 규정들이 그것의 원인들을 모세에게서 찾아야만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서술에서는 모세가 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그 서술은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권위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그 단락이 비록 시나이 계시가 그 다음에 첫 번으로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여기에 첨부되었느냐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²⁹⁾ 전승사적으로 볼 때 18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에서는 민 11장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가 인용되었다.³⁰⁾ 출 18장 13-26절은 특별한 경우와 관련된 더 후대의 한 단락이다. 민 11장 14절은 민 11장에서 사경의 최종 편집 이후 후대의 첨가에 속한다.³¹⁾

삼상 15장의 전승사적인 위치의 규정을 위해 7b절에 있는 전쟁 장소의 명명을 그것에 일치하는 창 25장 18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비교는 두 구절 사이의 문학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삼상 15장 7절의 표현이 창 25장 18절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라는 것이다: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삼상 15: 7b)
 //하월라에서부터(창 25: 18a¹) ... 앓수르 입구까지(18a^β),
 애굽 앞 술까지 (18a²).

여기서 창 25장 18a¹, a^β절과 18a²절은 이중 구절이다. 전자는 P-

29) 레빈, 윗글(2006), 574쪽.

30) 레빈, 윗글(2006), 574쪽.

31) 레빈, 윗글(2006), 596쪽.

이전의 “의미 없는 삽입”이 아니다: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 입구까지”. 후자는 P-이후의 보충, 즉 사경의 최종 편집자 R의 것이다. 그러므로 삼상 15장 7b절은 사경의 최종 편집을 전제로 한 것이다.³²⁾ 따라서 삼상 15장의 가장 오랜 층은 이미 P 문서 이후 시대, 사경의 최종 편집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것의 연대는 기원전 4세기 전반기(370년 이후)에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³³⁾

기본 문서 층의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사무엘 앞에 끌려간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32절은 왜 사울이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방해하였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에게도 승리하였음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야훼와 그의 왕의 강함을 알게 하며 야훼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비교. 수 2: 9, 10). 구약성서에서 아각은 삼상 15장 이외에서 단지 발람 이야기 안에 있는 세 번째 신탁 민 24장 3-9절에서 보충 구절인 7-9a절에서, 그 가운데 7절에서 등장한다:³⁴⁾

“7)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며 그의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홍왕하리로다 (8a) 그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낸 하나님은 그에게 들짐승의 뿔과 같으니 (8b) 그가 그의 적의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a) 그는 수사자와 같이 꿰어앉아 누우며 암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민 24: 7-9a).

민 24장 7절에서 물통의 물이 넘침은 “인간이 물을 푸는 우물과 수원 이 되는 샘터의 물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물의 풍요함은 들관에 파종된 씨들도 무성하게 할 비의 풍요함에 달려있다.”³⁵⁾ 이것은 신

32) 레빈, 윗글(2006), 305쪽.

33) 레빈, 윗글(2006).

34) 민 23: 18, 21-22, 24이 민 24: 7-9a의 후대의 평행 구절이라 할 때에, 출애굽 신앙고백인 민 23: 22은 민 24: 8a의 모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빈, 윗글 (2006), 609쪽 이하.

35) M. Noth, *Das Vierte Buch Mose, Numeri*(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해당 쪽.

11장 10, 11, 13절을 기억나게 한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리라 …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이 7절은 이스라엘의 땅의 축복을 말한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말렉 왕 아각보다 강하리라 한다. 이것은 사울이 그를 물리친 삼상 15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아말렉에 대한 역사적 우월성과 번영이 예고되어 있다.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 위에 내린 축복의 결과였다. 이스라엘의 강함은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야훼가 들짐승의 뿔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 특히 바벨론에서 소의 뿔이 신의 힘과 이로써 신성 일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신 33장 13-17절에 있는 모세의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 요셉의 뿔이 들소의 뿔과 같아서(17절) 이로써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진멸할 것이라 한다(비교. 왕상 22: 11).³⁷⁾ 이와 유사하게 민 24장 8b절에서도 야훼의 힘을 받은 이스라엘은 적의 민족들을 진멸할 것이다. 뿔 달린 들소의 상은 먹이를 삼키고 뼈를 찌는 사자의 상으로 옮겨갔다.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을 통해 무시무시한 힘의 소지자가 되었다. 이 모티프는 출 15장 14-16절; 수 2장 9, 10절을 암시한다. 또한 수 3장 10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יְהוָה/엘)이 살아 계시므로 이스라엘이 일곱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라 한다. 민 24장 8절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스라엘은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적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솔직하게 적들에게 적대하는 표현은 지파에 대한 격언과 유사하다. 민 24장 9a절은 유대의 축복에 해당하는 창 49장 9절에서 빌려온 것이다.³⁸⁾ 유다는 기원전 4세기 전반기에 여러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큰 능력을 가진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

36) Noth, *위글*(1966).

37) 모세의 축복인 신 33장은 12지파 체계에 대한 후대의 예이다. 비교. M. Noth,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Stuttgart: W. Kohlhammer, 1930), 21-23쪽.

38) 창 49장은 P문서의 문맥 안에 삽입된 것이다. P의 흐름은 1a, 28b(וַיְבָרֶךְ אֹתָם) 29절에서 발견되며, 1b절과 28*절은 편집적인 괄호이다. 비교. Ch. Levin,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VTS LXI* (1995), 170면. 각주 20.

하여 큰 능력을 가지게 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보충구절에 나오는 “야훼로부터 돌이키다”(11절)³⁹⁾, “야훼의 말씀을 세우다”(13절)⁴⁰⁾, “야훼의 말씀을 듣다”, “야훼의 명령을 어기다”(24절)⁴¹⁾와 같은 표현들은 더 후대에 나온 것이다. 2절과 관련하여 신 25장 17-19절을 도입하며, 나단과 다윗 사이의 만남인 삼하 12장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으로 전이시키거나, 혹은 왕상 11장 29절 이하를 모방한 사람이 꼭 신명기 역사가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삼상 15장이 거기로부터 유래한 역사신학의 종류는 신명기 사가적인 신학보다는 역대기 사가적인 신학에 더 가깝게 서 있다.⁴²⁾ 보충 구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4. 결론

삼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은 단지 1aa, 2, 3aa(“וְהַחֲרַמְתֶּם/버하하람 탐”까지), 4aa, 5a, 7-8, 12aba(“וְהַכְרַמְתֶּם/학카르멜라”까지), 31-32절에 불과하며, DtrH의 문맥 안에 추가로 삽입되었다. 내용적으로도 지금까지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삼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은 사울의 불순종과 그 결과로 왕에서 버림받음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삼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의 언어도 신명기 사가적인 언어와 거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 전승사적으로 삼상 15장은 P 문서뿐만 아니라, 사경의 최종 편집까지도 전제하고 있으며, 사경의 최종 편집 이후에 현재 오경의 최종 형태가 완성되기까지의 지속적인 추가 과정과 횡적인 연결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삼상 15장은 신명기와 신명기 사가적인 사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삼상 15장의 기본 문서 층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중엽까지, 즉 페르시아 말기에 기록되었다. 출애굽 시의 아말렉의 방해에 대한 회상은 고대 자료인 출 17장 7-13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다시 신

39) 민 14: 43; 렘 3: 19; 왕상 9: 6; 민 32: 15; 수 22: 16, 18, 23, 29.

40) 신 27: 26; 왕하 23: 3, 24; 렘 34: 18; 느 5: 13.

41) עָבַר אֶת פִּי יְהוָה. 민 14: 41; 22: 18; 24: 13. 이 구절들은 모두 4경의 최종 편집 이후의 것이다.

42) 레빈, 윗글(1987), 255쪽.

25장 17-19절(→출 17: 14→수 2: 10; 신 25: 17b→수 5: 4, 5, 6)에 영향을 주었다. 출애굽 여정을 방해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야훼의 명령은 출애굽의 여정을 방해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였던 신 1 - 3장; 수 2: 9, 10의 저자의 사상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 저자는 이방 민족들이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은 민 24장 7-9a절과의 관련하에 이해된다. 아각을 사로잡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더 높음을 해석한다. 이스라엘 왕의 강함은 그를 출애굽 하게 하신 야훼가 들짐승의 뿔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 출애굽 하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스라엘은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적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며,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는 페르시아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야훼의 능력이 강조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와 인간적인 왕의 강함을 강조한 왕정 초기 시대를 회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강함은 강대국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야훼에게서부터 온다.

5. 참고 문헌

- Bernhardt, K. H., *Das Problem der altorientalischen Königsideologie im Alten Testament* (VTS 8), (Leiden: Brill, 1961).
- Bertholet, A., *Deuteronomium* (KHC zum AT 5), (Freiburg i.B. : J. C. B. Mohr, 1899).
- Bickert, R., "Die Geschichte und das Handeln Jahwes. Zur Eigenart einer deuteronomistischen Offenbarungsauffassung in den Samuelbüchern", A. H. J. Gunneweg/O. Kaiser (Hg.), *Textgemäß Aufsätze und Beiträge zur Hermeneutik des Alten Testaments*. FS für E. Würthwein zum 70.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Birch, B. C., *The Rise of the Israelite Monarchy: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 Samuel 7-15* (SBL DS 27), (Missoula: Montana, 1976).
- Brekelmans, C. H., *De Herem in het Oude Testament*, (Leuven: Leuven Uni. Press, 1959).
- Budde, K., *Die Bücher Samuel*, (Kurzer Hand-Commentar zum Alten Testament VIII), (Freiburg-Leipzig-Tübingen: J. C. B. Mohr, 1902).
- Carlson, R. A., *David, the Chosen King. A Traditio-Historical Approach to the Second Book of Samuel*,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64).

- Dietrich, W., *Prophetie und 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1).
- Donner, H., "Die Verwerfung des Königs Saul", *Sitzungsberichte der wissenschaftlichen Gesellschaft an der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19. Nr. 5 (1983), 229-260쪽.
- Foresti, Fabrizio, *The Rejection of Saul in the Perspective of the Deuteronomistic School. A Study of 1 Sam 15 and Related Texts*, (Roma: Edizioni del Teresianum, 1984).
- Grønbaek, J. H., *Die Geschichte vom Aufstieg Davids (1. Sam 15-2 Sam 5). Tradition und Komposition*, (Kopenhagen: The Uni. Press, 1971).
- Holzinger, H.,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 Kuhl, C., "Die 'Wiederaufnahme' - ein literarkritisches Prinzip?," *ZAW* 64 (1952), 1-11쪽.
- 크리스토프 레빈, 「새 계약의 약속」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원제는 Ch. Levin, *Die Verheißung des neuen Bund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크리스토프 레빈, 「편집자 야웨기자」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6). 원제는 C. Levin, *Der Jahwis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Levin, C., "Rez. of Foresti, Fabrizio, The Rejection of Saul in the Perspective of the Deuteronomistic School. A Study of 1 Sam 15 and Related Texts," (Roma: Edizioni del Teresianum, 1984). *Theologische Revue* 83 (1987), 105-107쪽.
- Levin, C.,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VTS LXI* (1995), 163-178쪽.
- McCarter, P. K. J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8),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0).
- 노트, 마틴, 「전승사적 연구들」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73).
- Noth, M. *Das Vierte Buch Mose, Numeri* (ATD 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 Noth, M.,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s* (BWANT III/10), (Stuttgart: W. Kohlhammer, 1930).
- Nowack, W., Richter, *Ruth und Bücher Samuelis*, (Hand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I/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2).
- Schulte, H., *Die Entstehung der Geschichtsschreibung im alten Israel* (BZAW 128), (Berlin: De Gruyter, 1972).
- Schunck, K.-D., *Benjamin. Untersuchungen zur Entstehung und Geschichte eines israelitischen Stammes* (BZAW 86), (Berlin: De Gruyter, 1963).
- Seebass, H., "I Sam 15 als Schlüssel für das Verständnis der sogenannten königsfreundlichen Reihe I Sam 9, 1 - 10, 16; 11: 1-15 und 13, 2 - 14, 52," *ZAW* 78 (1966), 148-179쪽.
- Seebass, H., *David, Saul und das Wesen des biblischen Glaubens*, (Neukirchen-Vluyn:

- Neukirchener Verlag, 1980).
- Smend, R., *Die Entstehung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W. Kohlhammer, 1978).
- Smith, H. P.,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9).
- Weijola, T., *Die ewige Dynastie. David und die Entstehung seiner Dynastie nach der deuteronomistischen Darstellung*, (Helsinki: Finnische Exegetische Gesellschaft, 1975).
- Weijola, T.,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Helsinki: Finnische Exegetische Gesellschaft, 1977).
- Weiser, A., "I Sam 15," *ZAW* 54 (1936), 1-28쪽.
- Weiser, A., *Glaube und Geschichte im AT und andere ausgewählte Schrif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Georg Reimer, 18993).
- 원 진희, "신명기 5-8장 주석," 강 성열 등, 「역사비평주석' 신명기」 (서울: 감신대출판사, 2004. 2), 117-241쪽.
- 원 진희, 「출애굽 신앙고백」 (서울: 한우리, 2005).
- 원 진희, "신 1-3장은 DtH의 것인가?," 「구약논단」 20집(2006. 4), 84-100쪽.
- 원 진희, "삿 11장 13-27절의 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6집(2007. 12), 53-69쪽.
- 원 진희, "여호수아 2장의 문학 비평적 분석과 신학," 「신학논단」 45집(2008. 3) (출간 예정).

검색어

출애굽 표현공식
아말렉
아각
헤렘(진멸하다)
삼상 15장
출 17장 8-14절

투고일: 2008년 2월 1일
심사일: 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5일

Der traditionsgeschichtliche Ort von I Sam 15

Jin-Hi Won, Th. D.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In der Verwerfungsgeschichte Sauls I Sam 15 liegt die literarisch komplizierte Struktur vor. Da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die Literargeschichte der Verwerfungsgeschichte Sauls und den traditionsgeschichtlichen Ort von I Sam 15 zu bestimmen. Zu diesem Ziel dienen die Literarkritik und die Traditionsgeschichte.

Die Literargeschichte von dieser Geschichte ist folgendermaßen aufzuzeichnen: die Grundschrift von I Sam 15 besteht aus vv. 1aa, 2, 3aa(nur bis וְהִתְרַמְתָּם), 4aa, 5a, 7-8, 12aba(nur bis הַכְרַמְלָה), 31-32, sogar ist eine in der nach-DtrH Zeit in den Kontext von DtrH (550-535 v. Chr) eingeschobene Erzählung, die verschiedene literargeschichtliche Fortschreibungen erfahren hat. Der traditionsgeschichtliche Ort dieser Erzählung steht viel näher zur chronistischen Theologie als zur deuteronomistischen.

Der Grundbestand von I Sam 15 hat von vornherein mit den Themen von Ungehorsam Sauls und seiner königlichen Verwerfung nichts zu tun. Die Grundschrift von I Sam 15 hat die Exodustradition mit der Landnahmetradition verbunden und die redaktionsgeschichtlichen Gänge

wieder gespielt, die die JE-Traditionen ergänzen, die Priesterschrift voraussetzen und nach der Endredaktion des Tetrateuchs geschehen. Die Grundschrift hat den Amalekiterkampf Ex 17: 8-13 vor Augen und hat Dtn 25: 17-19 (→Ex 17: 14→Jos 2: 10→Dtn 25: 17b→Jos 5: 4, 5, 6) beeinflußt.

Das göttliche Banngebot an die Amalekiter, die Israel in den Weg gestellt haben, als es aus Ägypten aufgezo-gen war, steht im gleichen traditionsgeschichtlichen Horizont mit dem Verfasser von Dtn 1-3: Jos 2: 9, 10, der berichtet hat, daß Mose an die zwei Amoriterkönige den Bann vollstreckt hat, die Israel in den Weg bei seinem Aufzug aus Ägypten gestellt hat. Dem Verfasser liegt das theologische Ziel vor, sich die Fremdvölker vor Israel fürchten zu lassen. In diesem Hinsicht verstehen sich die Ausführung des Banngebotes an dem Amalek und der Bericht, daß der israelitische König Saul den Amalekiterkönig Agag "lebendig ergriffen hat," unter der Verbindung mit dem zusätzlichen Teil (Num 24: 7-9a) innerhalb des dritten Liedes Balams. Die Verschö-nung des Amalekiterkönigs Agag bedeutet, daß der israelitische König Saul höher als Agag ist und sich Sauls Reich erhebt. Die Stärke des israelitischen Königs geht aus Jahwe wie dem Horn des Wildstiers hervor, der Israel aus Ägypten herausgeführt hat und es verstärkt hat. An Hand der Stärke Israels werden sich die Fremdvölker vor Israel fürchten. Der Grundbestand von 1 Sam 15 ist in der Mitte des 4 Jh. vor Chr. zu datieren.

Keywords

Die Exodusformel
Amalek
Agag
hërem
1 Sam 15
Ex 17: 8-14